

고흥군 고향사랑기부금 ‘20억’ 돌파 목표 조기 달성

온·오프라인 모금 등 다변화 주력
원스톱 상담체계·시기별 전략 펼쳐
유자·한우 등 ‘청정 답례품’ 만족 ↑
브랜드 가치 향상·농가 소득증대에

고흥군이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20억 원을 돌파하며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15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누적 고향사랑기부금은 2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실적으로, 군의 치밀한 전략과 다각적인 홍보 활동이 빚어낸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기부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채널 다변화에 주력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모금은 물론,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기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했다.



지난 12일 고흥군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20억원 달성을 기념해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위기브’, ‘웰로’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기부 경로를 대폭 확장함으로써 신규 기부자 유입과 재기부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또 기부 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원스톱 상담 체계’가 주효했다. 상담부터 접수,

확인, 답례품 배송까지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편의성을 극대화했으며 연말정산 시즌인 12월을 맞아 세액 공제 혜택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등 시기별 맞춤형 전략을 펼쳤다. 무엇보다 ‘청정 고흥’의 이미지를 담은 고품질

답례품이 기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고흥 유자를 비롯해 수호천사 햄살, 명품 한우, 김, 미역, 제철 수산물 등은 기부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했다.

군은 고흥물 입점 업체와 협력해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만을 엄선해 제공함으로써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향우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적 홍보와 축제 현장 부스 운영, 우수 답례품 전시 등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이 더해지면서 출항 향우뿐만 아니라 고흥에 관심을 가진 일반 국민의 참여도 크게 늘었다.

고흥군 관계자는 “20억원 달성은 고흥을 사랑하는 많은 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기부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 개선과 투명한 기금 사업 공개,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 등을 통해 기부자와 지역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내년에는 기부자가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는 ‘지정 기부’를 확대하고, 기금 사업 활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제도의 신뢰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주성학 기자

보성 읍포해수욕차센터 방문객 23만명 ‘역대 최대’

20억 수입…웰니스 관광 명소 ‘우뚹’
녹차·해수 결합 콘텐츠 등 효과 톡톡

보성군의 대표 힐링 명소인 ‘읍포해수욕차센터’가 개장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남해안 웰니스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15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읍포해수욕차센터의 누적 이용객은 23만6천여명, 수익은 약 19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웰니스 관광 수요 증가와 주변 관광지와 연계 강화 전략이 맞물려 이뤄낸 성과로, 센터의 가파른 성장세는 보성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인 ‘녹차 해수탕’이 견인했다.

보성 녹차의 카테킨 성분과 해수의 미네랄이 결합해 피부 진정과 피로 회복에 탁월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힐링을 원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우수한 입지 여건도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읍포 솔밭해수욕장과 인접한 센터는 사계절 해변 산책과 일출·일몰 감상이 가능하다.

또한 대천다원, 제암산자연휴양림 등 주요 명소가 이어진 ‘보성 웰니스 관광벨트’는 방문객들을 지역 식당과 숙박업소로 이끄는 낙수 효과를 내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



보성군 대표 힐링 명소인 ‘읍포해수욕차센터’의 누적 이용객이 23만여명을 돌파하며 남해안 웰니스 관광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진은 센터 내 노천탕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성군 제공〉

들고 있다.

이밖에 센터는 내부에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해 농가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 예술인 작품 전시회를 여는 등 관광과 로컬푸드,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을 형성해 단순한 목욕 시설을 넘어 복합 문화 플랫폼의 기능을 하고 있다.

군은 오는 2027년 ‘읍포해양복합센터’가 준공

되면 기존 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남해안 해양 레저·관광의 랜드마크로 도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읍포해수욕차센터는 녹차와 해양 자원을 결합한 보성만의 독창적인 관광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과 소비가 동반 성장하는 웰니스 관광 모델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광양시의회 “대규모 개발사업 정보 공개·주민 소통해야”

현안 사업 추진 중 찬반 갈등 격화
입장문 통해 “주민 의견 수렴” 촉구

광양시의회가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집행부에 정부 공개를 촉구 하고 나섰다.

15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신뢰와 공동체의 화합 없이 추진되는 발전은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수 없다”며 “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주민 소

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양시에서는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조성 ▲중금대교 건설 ▲염포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입지 선정의 적정성을 비롯해 환경·안전·교통 문제 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지역 사회 내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시의회의 ▲주요 사업의 내용과 추진 절차 투명 공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 설명과 의견 수렴 ▲관련 법령에 따른 공

정하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 등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시의회 차원에서도 주요 현안 사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집행부와 사업 시행자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은 “지역 발전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참여와 신뢰 형성”이라며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일수록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순천시, 오천그린광장 친환경디자인 ‘최우수’

도 공모전서 공공 공간 분야 호평

순천시는 “최근 오천그린광장이 제10회 전남도 친환경디자인공모전 공공 공간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이번 수상은 순천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정책의 성과를 입증한 결과로, 오천그린광장은 심사 과정에서 친환경성, 조화성, 창의성, 실용성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휴수 시에는 물을 가두는 저류지 보면

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혁신적인 공간 활용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오천동 일원에 24만5천㎡ 규모로 조성된 이 광장은 순천만국가정원, 동천, 그린아일랜드로 이어지는 거대한 생태축을 완성했으며, 누구나 걷기 편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됐다. 지난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과 각종 문화 행사의 주 무대로 활용되기도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오천그린광장은 생태와 사



람 중심의 도시 공간 혁신이 빚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며 “앞으로도 문화 콘텐츠를 접목해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휴식 공간이자 남해안 남동권의 핵심 정주 거점으로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곡성군 “기차마을에서 겨울 추억 만드세요”

25-28일 나흘간 ‘메리-go-빙고’ 행사
지역 농특산물 등 푸짐한 경품 제공도

곡성군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섬진강기차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겨울 추억을 선사한다.

15일 곡성군에 따르면 오는 25-28일 나흘간 섬진강기차마을 전역에서 겨울 특별 이벤트인 ‘메리-go-빙고’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겨울 감성을 담은 포토존과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미션형 빙고 게임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이벤트의 핵심인 ‘4x4 빙고’는 기차마을 곳곳을 탐험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관람객은 입장 시 배부되는 빙고판을 들고 사진 인증, 스탬프 수집, SNS 업로드 등 지정된 미션을 수행하며, 빙고 한 줄만 완성해도 ‘한정판 클리핑 키트’와 함께 레일바이크·놀이

시설 탑승권, 지역 디저트 교환권, 감성 굿즈 등이 담긴 ‘랜덤 경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6칸을 모두 채운 ‘풀 빙고’ 달성자에게는 곡성 특산물인 지역 농산물이 추가로 증정된다. 경품은 매일 선착순 200명에게 제공한다.

부대 행사도 풍성하다. 생태학습관 중앙 로비에서는 행사 기간 매일 2회(오후 1시·3시) 전문 마술사가 펼치는 ‘어린이 매직 공연’이 열려 동심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구 역사와 플랫폼, 치치뿌뿌 놀이터 등 주요 지점 4곳에는 크리스마스 테마의 포토존이 조성돼 연인,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인증샷 명소’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겨울철 비수기에도 곡성을 찾는 분들이 머무는 동안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했다”며 “SNS미션 등을 통해 곡성의 매력이 널리 알려지고, 지역 상권에도 훈풍이 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담양군, 연말 맞이 고향사랑기부 경품 ‘핑퐁’

28일까지…상품권 등 추가 증정

담양군은 15일 “이날부터 28일까지 2주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담양산타의 선물! 고향사랑기부 추가 경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7회 담양산타축제’의 성공을 지원하고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 내에 담양군에 10만원 이상을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명에게는 ▲담양 한우 ▲담양 햅쌀 ▲네이버페이 포인트(1만원) ▲모바일 커피 쿠폰(5천원) 등 다양한 경품을 추가로 증정된다. 당첨자는 행사 종료 후 개별 안내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성군-송광재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맞손’

위·수탁 협약…직업 훈련·근로 기회 제공

장성군은 “최근 군정 상황실에서 사회복지법인 송광재단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직업재활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군은 앞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사업 수행 능력과 공신력을 갖춘 송광재단을 최종 수탁 기관으로 선정했다.

협약에 따라 송광재단은 내년 1월1일부터 오는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된다.

장성을 영천리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에 들어서서 해당 시설은 연면적 499㎡(약 150평) 규모로 직업재활실과 프로그램실, 휴게 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광재단은 시설에서 ‘몰티슈’를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할 계획이며,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직업 훈련과 근로 기회를 제공해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다.

유향자 송광재단 대표는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직업 훈련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시설 운영이 지역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꿈을 실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